

곰나루

공주시서 서북쪽으로 십리 정도
가면 공주를 싸고도는 금강기슭에
곰나루라고 하는 나루터가 나온다.
이나루터를 '고마나루터' 라고도 하고
'웅진' 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
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아득한 옛날이었다. 이 곰나루 근처의 연미산(燕尾山)에 큰 굴이 있는데 이 굴에서 커다란 암곰이 한마리 살고 있었다. 암곰은 나이가 들면서 시집을 가고 싶었다. 마을에는 멀리 떨어진 외진 강가에서 살기 때문에 시집을 갈래야 갈 수가 없었다. 솔바람 소리가 밤새도록 동굴 속에 와 부딪히는 겨울밤이나 달이 유난히 밝은 가을 밤 같은 때도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날도 곰은 하염없이 굴을 나서다가 발을 멈추었다. 그 앞에 잘 생긴 사나이가 옷깃을 바람에 날리면서 유유히 지나고 있지 않은가. 외로울대로 외로와진 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것도 아주 잘 생긴 사나이였기 때문에 암곰은 기쁨이 충만해 있었다.

'저 사나이를 내 남편으로 삼아야지.'

암곰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더 생각할 것이 없다는 듯이 달려가 그를 입에 물고 굴속으로 들어왔다. 사나이는 이미 기절하여 있었다. 곰은 사나이를 눕혀 놓고 물을



뿌리며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한참 뒤에 깨어난 사나이는 눈을 부시시 뜨면서 굴속을 살펴 보았다. 그러다가 곰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몸을 움찔했다. 곰은 사나이가 놀라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다가와서 사나이의 몸을 쓰다듬으면서 놀라지 말라는 듯이 다독거렸다.

사나이라도 곰이 해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마음을 놓았다. 곰은 날마다 맛있는 고기를 차려다 주었다. 그러고 밤에는 제 몸에 있는 털로 사나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잠을 잤다. 이처럼 사나이를 위해서 곰은 모든 정성을 다하여 섬겼지만 어디 나갈 때는 굴 앞에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나갔다. 그래서 사나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굴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답답하고 지루했다. 거기다가 세상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곰이 나간 뒤에 굴을 막아 놓은 돌을 떠밀어 보았

지만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나이는 할 수 없이 꿈이 깃다주는 고기나 찢어먹고 꿈을 바라보며 살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는 동안에 꿈은 새끼를 배고 그 뒤 몇 달 뒤에는 마침내 새끼를 낳았다. 새끼는 이상하게도 반은 사람 모습을 닮았고 반은 꿈의 형상을 닮았다. 처음에는 징그러웠다. 그러나 날마다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그에게는 더없이 귀엽고 예쁜 아기로 변하였다. 사나이는 사람도 아니고 꿈도 아닌 아기꿈과 노는 것이 더 없는 즐거움이었다.

아기 꿈을 끌어 안고 목마를 태우고 걸음마를 시킬때면 그는 어떤 기쁨까지도 느껴졌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꿈은 꿈대로 가슴이 뿌듯한 기쁨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일년이 지나고 또 일년이 지난 뒤에 또 새끼를 낳았다. 두 아기꿈은 무럭무럭 자랐다. 이제 네 식구가 된 것이다. 사나이는 그 전처럼 심심하지는 않았다. 비록 굴속이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지낼만 했다. 그러나 문득문득 세상사람들이 그림고 그들과 어울려 지내던 시절이 목이 마르도록 간절하게 그리웠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꿈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는데 그 날은 굴 앞에 돌을 막아놓지 않은 채 나갔다. 꿈

은 아마도 새끼를 돌이나 낳았으니 도망은 가지 않으리라 생각에 들었던 모양이다. 사나이는 이 때를 놓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 길로 굴을 뛰쳐나왔다. 마침 나루터에는 빈배가 한 척 매여 있었다. 사나이는 그 배에 올라타고 노를 저었다.

그때 마침 굴로 들어오던 꿈이 이것을 보고 강가에 서서 돌아오라는 듯 소리치며 손짓을 했다. 그러나 그는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꿈은 새끼를 데리고 와서 높이 들고 손짓을 했다. 마치 돌아오지 않으면 새끼를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꿈은 정말로 새끼 한마리를 강물에 던져 버렸다. 사나이가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꿈은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다가 새끼와 함께 강물에 빠져 죽어 버리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는 뒤부터 이 나루를 '곰나루'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런 애절한 사연을 지니고 있는 곰나루는 공주시의 명소로 공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편집부〉

